

# ‘나홀로 소방관’ 섬지역 인력·장비 충원한다

## ■ 전남소방본부, 화재 초기진압 대책 마련

### 4년간 720명 증원 ‘1인 지역대’ 우선 배치

### 소방차 없는 신안 하의·임자도 펌프차 구입도

전남지역이 소방장비·인력부족으로 섬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1인 소방서(지역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탓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광주일보 9월 19·22일자 6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가 대책을 내놨다.

전남소방본부는 23일 ▲1인 119지역대 해소를 위한 인력 보강 ▲소방차 미배치 섬지역에 차량 배치 ▲섬지역 소방시설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전남 섬지역 및 1인 소

방서 소방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전남지역엔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1인 소방서’가 43곳(전체 지역대 73개소)으로 소방본부는 향후 4년간 소방공무원 720명을 증원, 1인 소방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1인 소방서는 화재 출동시 소방관 한 명이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장비를 챙기고, 직접 차를 몰고 출동하는 탓에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차조차 배치돼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해서는 면(面)소재지이면서 소방차가

없는 신안군 하의도·임자도 등을 우선으로 소방차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는 유인도가 296곳에 이르는 데도 예산 부족 탓에 소방관이 배치된 곳은 단 12개 섬지역, 근무하는 소방관도 47명뿐이다. 소방장비도 펌프차 16대, 구급차 5대로 위급상황 발생시 주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소방본부는 섬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 소방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섬지역에 향후 3년간 소화전과 호스, 소화기 등을 갖춘 비상 소화장치함 63개를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181개 유인 도서에 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도서 지방 특성상 좁은 도로를 타고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야할 경우를 대비해 ‘소방용 삼륜 자동차’도 100여대를 구매해 섬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소방관과 소방장비 보강 외에

도 섬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 도서지역엔 현재 60개 의용소방대(1335명)가 운영중인데 69개 대(1500명 수준)까지 늘리고 ‘주민 안전기동대’도 현재 94개 섬(636명)에서 177개 섬으로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소방인력이 부족한 섬지역이나 1인 소방서 지역에, 일시에 소방력 보강이 힘든 만큼 화재 발생 초기 주민이 직접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자율진화체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여건 탓에 소방장비와 인력을 섬지역 등 전남지역 곳곳에 충분히 배치하지 못해 일부 지역의 경우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힘들었다”면서 “장비와 소방방재정과 협의 ‘안전한 전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고3, 마무리 수업 열중

201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50여일 앞둔 23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3학년 1반 수험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학생 국가장학금 가족 금융재산도 반영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롭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제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

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오늘 시간당 최고 30mm 비

광주·전남지역은 24일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어 낮까지 시간당 최고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은 제 16호 태풍 ‘풍왕(FUNG-WONG)’이 오전부터 약화돼 열대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0~100mm.

기상청은 또 고층과 보성, 여수 등 전남 남해안 지방에 최고 150mm에 이르는 폭우와 함께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

로 전망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이 이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가장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날 밤늦게부터 비가 그친 뒤 점차 맑아져 다음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 18:27  
달출 06:08 달질 18:20

태풍아, 안전하게 지나가렴!

히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히리고비	21/25	보성	히리고비	20/24
목포	히리고비	21/24	순천	히리고비	20/24
여수	히리고비	21/24	영광	히리고비	22/25
나주	히리고비	21/25	진도	히리고비	22/25
완도	히리고비	22/25	전주	히리고비	19/24
구례	히리고비	19/23	군산	히리고비	20/24
강진	히리고비	22/25	남원	히리고비	18/24
해남	히리고비	22/25	축산도	히리고비	21/23
장성	히리고비	20/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동~남	1.5~2.5	북서~북	1.5~2.5
남해	남부	남동~남	2.0~3.0	북서~북	2.0~3.0
남해	서부	남동~남	2.0~3.0	남서~남	1.5~2.5
남해	서부	남동~남	3.0~4.0	남서~남	2.0~4.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10	07:27		
		14:25	19:39		
여수		09:05	02:46		
		21:16	15:04		

####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10
빨래	20

####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10/1(수)
☀	☀	☀	☀	☀	☀	☀
17/26	16/26	16/26	15/26	16/26	14/24	13/24

## 여수 해상 3번 조난 요트 선장 해경 신속한 대처로 ‘구사일생’

### 신고 즉시 순찰정 보내 구조

이들 새 여수·고흥·해남 앞바다에서 연이어 조난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같은 날 밤 9시 고흥군 도화면 남동쪽 2.50km 선장이 해경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 일은 해경이 향후 조난사고 등 해양 안전사고 발생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모(54)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5분께 여수시 돌산읍 동쪽 5km 앞바다에서

2.5t급 요트를 타고 가던 중 닻이 그물에 걸리면서 요트가 멈춰섰다. 표씨는 지난 18일 일본 도쿠야마(Tokuyama)항에서 출항했었다.

표씨는 여수해경 상황실 12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내용은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정과 순찰정에 고스란히 전파됐다.

이 과정에서 승선인원·주변 위험요소·선박 상태와 규모 등도 꼼꼼히 챙겼다. 세월호 참사 당시 우왕좌왕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어떤 구조장비를 갖춘 함정이 현장에 출동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해경은 곧바로 구명·응급치료 장비

등을 갖춘 100t급 경비함을 보내 표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표씨는 구조 직후 재항해에 나섰으나 같은 날 밤 9시 고흥군 도화면 남동쪽 2.5km 해상에서 또다시 표류했다.

표씨는 122 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경은 표씨의 요트 상태 등 재차 확인한 뒤 순찰정을 현장에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요트 항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표씨의 요트를 고흥군 봉래면 축정항으로 예인했다.

표씨는 다음날 오전 9시 그물을 제거한 뒤 재차 출항했으나 12시간 만인 이날 밤 9시50분께 해남군 송지면 어란진 북서쪽 5km 해상에서 또다시 요트가 멈춰섰다. 표씨는 완도해경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경은 50t급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진도군 백파진항으로 예인했다. 표씨는 다음날 오전 출항, 목적이인 목포 요트전용 마리나항에 도착했다.

해경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소중한 목숨을 구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해상사고시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경의 자구노력이 있다면 화(禍)를 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자연이 빛어낸 아름다운 빛의 향연”

한국의 아름다운 길 9위 백수해안도로에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 제5회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일시 : 9월 27일(토) 09:30 ~ 22:00  
장소 : 백수해안도로 해수온천랜드 광장

<b>영광군</b> 군수 김준성 부군수 정근택	<b>영광군의회</b> 의장 김양모 부의장 최은영 의회운영위원장 손옥희 자치행정위원장 장세일	<b>산업건설위원장</b> 장기소 <b>의원</b> 강필구 <b>의원</b> 김강현 <b>의원</b> 심기동
---------------------------------	---	---

<b>영광종합병원 공립</b> <b>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b> <b>영광기독·신하병원</b>	<b>이사장</b> 조용호 <b>병원장</b> 오승균 <b>이사장</b> 김경욱 <b>기독병원장</b> 이만재
---	--